

## 페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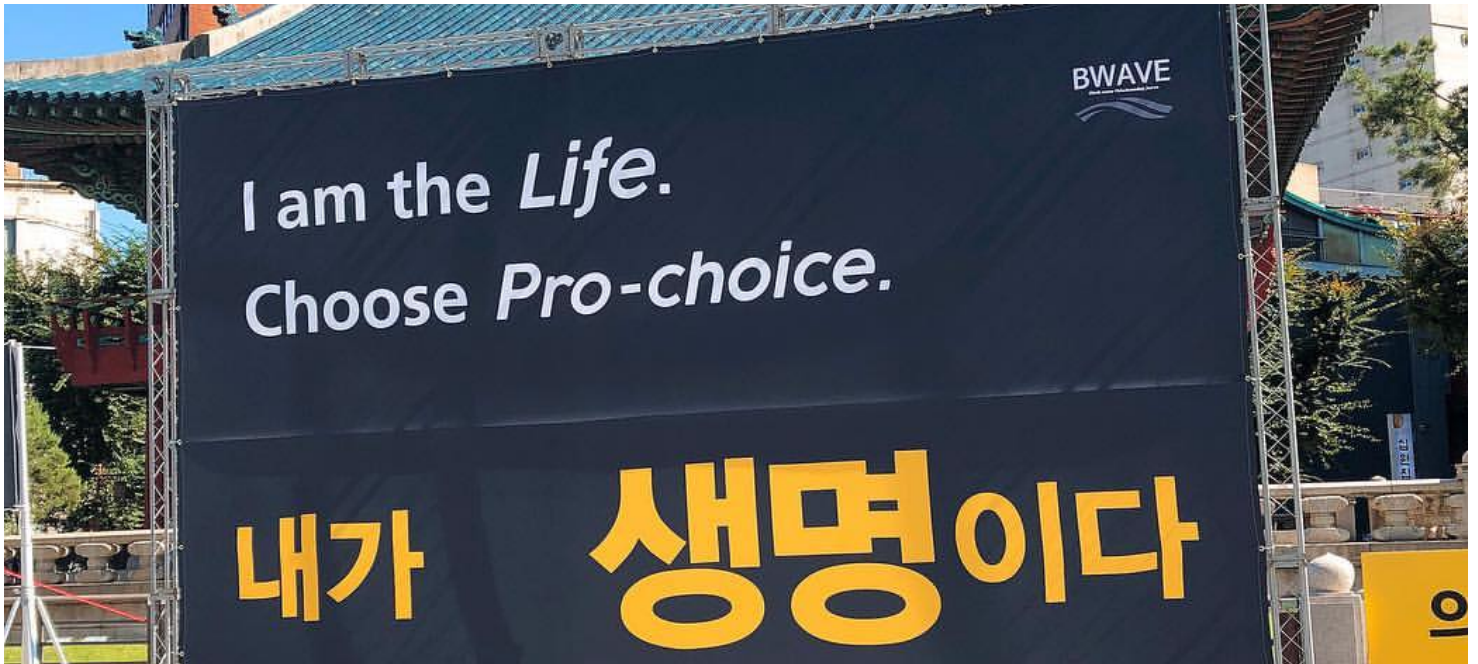
이번 레터지에서는 “페미니즘과 그리스도인의 성 정체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 WITH BIBLE

NEWSLETTER 201810

## 낙태죄 폐지 논쟁

특히 많은 페미니스트 단체가 지지하는 낙태죄 폐지 논쟁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 Issue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2018년 9월 2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단체 비웨이브가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내가 생명이이다”(I am the Life)라는 문구를 내걸고 있다.

### Fact Check 형법

**제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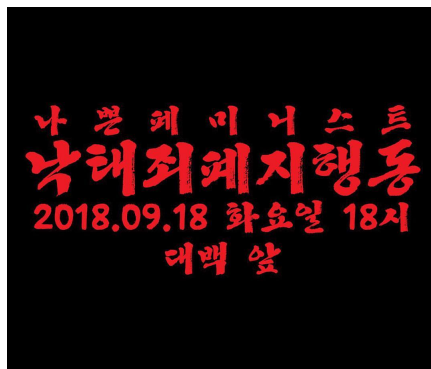
### My Body My Choice

포궁까지 검열하냐!  
낙태자유 보장하라!  
여성은 아기공장이 아니다!

### Fact Check 모자보건법

**제14조**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의 경우, 임신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는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제15조**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 내가 생명이이다!?

비웨이브 운영진은 낙태죄 폐지로 낙태가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최소한 여성 개인에게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주자는 거다. 낙태죄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가 출산을 저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고 여성이 가진 몸의 권리에 개입하고 있다. 낙태를 선택한 여성을 낙인 찍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서울신문 기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27500096>)

그들은 준비한 해바라기씨와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7mm 크기의 해바라기 씨는 임신 7주차일 때 배아 크기와 비슷하다. 이 7mm가 한 인간의 몸보다, 인생보다, 생식권보다 더 중요한가?”(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681924>)

그래서 그들은 “내가 생명이이다”(I am the Life)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우리는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서 생명의 주권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으며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단호한 결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시 54:4),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사 42:5).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1:3),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

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고전 8:6). 내가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Life),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Life Giver), 그리스도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Life Owner).

페미니스트들은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과감하게 외치지만, 진정으로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해바라기 씨만 한 배아는 생명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배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4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 시편 139편 16절**



페미니스트들은 배아 세포는 생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포가 생명이면 암세포도 생명이냐”라고 따집니다. 태아를 해바라기 씨나 계란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

**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 1:5)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될 경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출 21:22~25). 이는 성인 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한 율법과 동일한 법입니다(레 24:17~20).

성경은 이와같이 임신 몇 주차의 태아인지, 태아의 크기가 얼마한지를 따지지 않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심지어 모태에 짓기 전, 태아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기록된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인지,

지, 아니면 생명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인지.

결국 낙태에 대한 논쟁은 여성의 인권, 여성의 생식권, 여성의 행복추구권 이전에 어떤 관점으로 사람과 생명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싸움, 즉 어떤 권위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의 싸움입니다.



# 성경은 여성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 관심이 없나?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성의 인권,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 권위 전쟁!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스트나 동성애자를 바라볼 때 그 중심이자 기초에 그리스도인과 다른 기준점 혹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소영씨는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IVP, 2018)이라는 책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148p).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도바울의 기록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231p).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페미니즘의 맥락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경보다는 삶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견해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폴 킹 주엿이라는 페미니스트 학자는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전서 2장 11~14절 말씀을 가리켜 여성의 순종이 강조된 이 본문은 가부장적인 유대교 배경을 가진 바울이 성령의 영향보다는 인간적인 영향을 받아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녀의 동등한 창조를 가르칩니다.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습다(창 1:26~28).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 본질에 있어 차별이 없고 '하나'입니다(갈 3:28). 물론 성경은 남녀의 가정, 교회 안에서 역할의 차이를 가르치지만, 바로 이 본질적 이유로 남녀 모두가 기본적인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명령합니다(출 22:22; 신 10:18; 24:17; 약 1:27)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가운데 입양에 힘쓰고, 낙태한 여인을 돌보고, 경제적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여성의 상처와 불행,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로 낙인을 찍어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 산부인과 의사 사회, “하루 평균 3천명 낙태 수술 추정”(2017, 연합뉴스)

우리는 반대로 묻기 원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상황이, 정서적 상처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짐이 된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3천 명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고, 그 이유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시는 생명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며, 죽여도 좋다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은 해바라기 씨를 던지지만, 같은 논리로 출산직전의 태아도 ‘생명’이 아니라고 말하며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지금 미국 민주당 정책이 출산직전 아이 낙태 허용입니다.**

“성경적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전제에 있어서도 변경을 시도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을 만날 때 그것이 참된 말씀이 아니라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식의 꼬리표를 붙이곤 했다.

마리아 카시안, The Feminist Gospel, 83~5pp

유명한 페미니스트 학자 레베카 그릇후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성경을 재구성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결국 페미니즘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삶의 주체로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견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의 언어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 결론내릴 수 없다. 성경의 언어는 가부장제 문화에서 비롯된 표현이다”(Good News for Women, 124p)

그래서 누구든 동성애, 낙태, 페미니즘 관련 주장을 할 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주장하려면, 성경을 일부 혹은 전부 무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울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울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 1:2)



##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시 68:3~6)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합니다. 페미니스트가 던지는 질문은 대답하기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가령 "강간당한 여성이 낙태죄 때문에 아이를 지우지 못하는 것이 가당한가?"

사실 모든 낙태의 1% 정도에 해당하고, 나머지 99%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의 낙태가 아닌데도,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 논쟁의 우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낙태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강간이라는 죄를 엄격하게 꾸짖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규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신 22:25). 참으로 비극적인 그 일에 우리도 반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지금의 법이 충분히 처벌하지 못하고 넘어갈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요구하실 것입니다(신 32:4; 시 33:5).

하지만 낙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의 결과에 대해 또 다른 범죄로 해결하려는 경우입니다. 만일 산모의 속에 있는 태아를 성경의 말씀에 따라 생명이라고 본다면, 낙태의 문제는 앞에 일어난 일이 아무리 비극적이라 해도 동일합니다. 생명을 제거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슬픔과 고통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피해와 상처를 해결하려는 방법, 앞으로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방법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는 성경이 확증한 인권을 인정함으로 살리고, 입양이나 위탁을 통해 돌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산모는 가족, 기관, 교회, 정부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해 격려, 위로, 실질적 도움과 돌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가능합니다.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실 것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

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페미니즘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당신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롬 8:30).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무시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의심과 의문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 페미니스트가 성경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한, 그리스도인이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이 여성의 행복을 위협하는 실재도 공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낙태를 한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기가 생명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없다고 믿고, 오직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아를 사람으로,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또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더라도 그 죄의 결과를 맛봐야 하는 것처럼, 낙태 역시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페미니스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며,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며,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분별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로 결국 여성의 고통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여성과 아기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인지, 어떻게 참된 행복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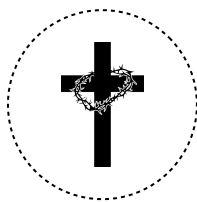
페미니스트와 다른 방법으로 낙태죄를 바라보는 우리가 참 행복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믿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권리,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존중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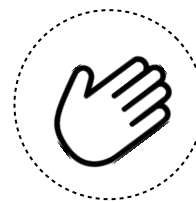
주관적 판단, 감정, 극단적 상황이나, 대중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 소망

하나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낙태하는 사람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참 위로와 소망이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이들이 그 죄에서 온전히 놓임 받고 자유를 얻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며, 권리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인생을 바라본 것처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우리 손과 발을 통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여성과 죽임당하는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게 하시며,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것임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